

광주 특급호텔들 단체·출장객 잡기 나섰다

트윈베드 룸 늘려 객실 효용화 높이기 비즈니스 호텔들도 리모델링 진행중

국제행사 유치로 광주를 찾는 단체와 출장객들이 늘면서 광주 지역 1급 이상의 특급호텔들이 그동안 지적됐던 '2인 1실 1베드' 룸에서 '트윈 베드 룸'으로 바꾸는 '객실룸 효용성' 높이에 나서고 있다.

20일 홀리데이 인 광주 등 광주 지역 호텔업체에 따르면 최근 각종 국제행사와 화회(세미나), 출장을 위해 지역을 찾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객실 타입 조정과 내부 인테리어 공

사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광주지역 호텔업계는 그동안 객실 타입이 애초 '2인 1실 1 베드 중심'에 맞춰져 있어 고객 확보에 애로를 겪어왔다.

실제로 국제행사나 화회가 집중됐던 작년의 경우 2인 트윈 베드의 객실이 부족, 객실배정을 조정하거나 엑스트라 베드를 투입해 투숙객을 맞았다. 이마저도 안될 경우 고객들을 다른 호텔에 안내하기도 했다.

홀리데이 인 광주는 객실 총 205개 중 트윈 베드를 갖추고 2인 이상 투숙 가능한 객실은 전체의 30% 수준인 60여개에 불과했다. 라마다플라자 광주 역시 120개의 객실 가운데 레지던스 스위트 객실 18개와 디럭스 트윈 13개를 포함해 60여개를 운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광주시 외곽에 있는 신양파크호텔과 호텔무등파크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단체행사와 여행객, 출장객들의 최근 경향을 파악 이미 리모델링 작업과 객실 조정을 마쳤기 때문이다. 새 호텔에 비해 객실 면적이 넓고, 인테리어를 바꿀 시기가 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이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신양파크호텔의 경우 87개의 객실 중 스탠다드 트윈 26개와 온돌 더블 침대 객실 21개를 포함해 2인 이상 트윈 베드가 가능한 70여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고, 호텔무등파크는 110개의 객실 중 온돌을 포함 80여개가 트윈 베드로 운영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역 특급호텔들은 단체·출장객과 여행객의 선호도 변화에 맞춰 객실 타입을 조정하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등 재단장에 나섰다.

호텔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투숙객들이 1인 1실을 선호하고 출장

와서도 최소 트윈 베드를 원하는 추세"라며 "애초 객실 타입을 조정하거나 이러한 여건에 맞는 객실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객이 몰릴 때를 생각하면 엑스트라 베드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구조변경과 트윈 베드 객실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트윈 베드 룸 부족현상에 따른 틈새 시장을 겨냥한 비즈니스호텔의 리모델링 작업 움직임도 감지된다.

F&T호텔 등 광주 상무지구 비즈니스호텔 두세 곳이 트윈 베드 룸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을 진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반 과태료 최고 1억원 부과

대형마트가 영업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설계획에고제가 도입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영업 개시 30일 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3년 3월 20일 대통령령 공포에 따라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상, 경기 이남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열었다.

일본의 유통산업, 전국에서 최초로 대형마트와 중소기업의 간에 상생협력을 체결한 과주(과주)의 사례도 소개했다.

22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 경기, 강원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은 4월 24일 시행된다. /연합뉴스

신용불량자 362만명 선별적 사면

개별 금융기관 기록 채무조정 거친후 삭제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낙인이 찍힌 신용불량자(현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36만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다중채무자도 126만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가운데 개별 금융기관에 비공식으로 연체 기록이 남은 채무자를 선별, 채무조정을 거쳐 해당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위기 때 사업실체 등으로 빚을

갖지 못하거나 연대보증 탓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과 관련한 기록은 여전히 '주홍글씨'처럼 금융권에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서 7년이 지나면 연체 기록이 폐기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에는 남아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과거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가 집계·보고한 자료로는 외환위기 원년인 1997년 말 3개월 이상 금융권 채무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143만

명이었다.

신용불량자는 위기의 여진이 본격화한 1998년 236만명으로 1년 새 65.0% 급증했다. 1999년 말에도 235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외환위기 때 쇠워진 빛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한다.

외환위기에 이어 터진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다중채무자도 2004년 4월 기준으로 126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선별 구제 대상으로 검토된다. /연합뉴스

전남농협, 농촌 복지에 올 52억 지원

농가 도우미 파견 등 행복나눔 물결 운동 추진

전남농협이 농업인 행복사대를 열기 위해 '행복나눔 물결 운동'을 역점 추진한다.

'행복나눔 물결 운동'은 나눔 실천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농촌지역의 문화와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농협이 농업인 관련단체와 함께 2012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나눔 봉사 활동이다.

전남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조합원 자녀 4745명에게 총 40억 8100만원의 학자금 지원했으며 올해는 규모를 더욱 확대해 5095명에게 40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

획이다.

또한 영농활동이 어려운 2610농가에 영농도우미 파견에 8억94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고령 부부, 기초수급생활대상자 또는 다문화가정 등 2281농가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해 1억 7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올해도 영농도우미 임금 10억원, 가사도우미 활동비 2억을 책정하고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전남농협은 농촌지역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서비스, 경로당 청소, 밑반찬 지원, 무료의료지원, 한글교실을 운영중이

다. 이외에 취약농가 주거환경개선(벽지·장판 교체, 노후가재도구 교체 및 전기시설 교체)과 생필품 지원(쌀, 김치), 영농(가사)도우미 운영, 환자 의료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전남농협임직원들도 행복나눔 동전모이기, 요양원 정기봉사, 밥퍼나눔봉사, 도서기부캠페인, 행복나눔기금 조성해 전남사회 복지공공모금회에 정기적으로 기탁하는 등 활발한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종수 전남농협 본부장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희기자 lion@



촌공증, 삭으로 삭~
2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대장에서는 나쁜 맛, 촌공증에 효과적인 삭을 선보이고 있다. 삭은 무기질과 비타민 함량이 풍부하여, 촌공증, 피부 건조, 호흡기 질환, 각종 알레르기성 증상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수입농산물 값 급등

양파 41% 등 7개월래 최고

지난달 양파와 마늘, 당근, 양배추 등 농산물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20일 관세청이 낸 '2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농산물 수입가격지수(2010년 1월=100)는 117로 작년 7월 119이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월대비 5.2%, 전년 동월대비 5.4%다.

농산물에 축산물과 수산물 수입가격지수를 더한 농축수산물 지수(116)도 작년 7월(117.9) 수준에 근접했다. 농축수산물 지수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4.5%, 1년전 대비로는 1.2%이다.

한달 전보다 값이 많이 오른 품목은 냉장 양파(41.4%), 양배추(14.7%), 냉동 오징어(24.3%) 등의 오름폭이 컸다. /연합뉴스

양파(8.4%), 냉장 배추(6.4%), 건조 고추(7.6%), 오박(3%) 등 채소류가 대부분이다.

건조 팥(42.9%), 강남콩(20.4%), 원두 커피(5.5%), 생두 커피(2.6%) 사료용 옥수수(3.5%) 등 곡물류도 값이 올랐다.

과일 가운데 바나나(15.3%), 오렌지(4.1%), 견과류 중에는 냉동 밤(6.6%)·아몬드(5.5%)·호두(4.2%), 완제품에서는 김치(7.4%)·밀가루(9.2%)·두부(3.6%)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소고기(0.9%), 돼지고기(-1%), 닭고기(-1.3%) 등 축산물은 보합세였다.

수산물 중에는 냉장 낙지(40.3%), 냉장 바지락(17.8%), 냉장 주꾸미(32.3%), 냉동 가리비(150.3%), 냉동 오징어(24.3%) 등의 오름폭이 컸다. /연합뉴스

중소가맹점 새 카드수수료 2015년 적용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중소가맹점의 새로운 카드 수수료 적용이 당초 오는 8월에서 2015년으로 늦춰졌다.

여신금융협회는 20일 신한카드 등 카드사와 협의의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카드사들은 당초 오는 8월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업소에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자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중소 자영업자에 부담될 수 있다며 단계적 조치를 요구해 2015년으로 미뤄졌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업소에 대해 오는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수수료율을 올려 2015년부터 정상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여신전론금융법 개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졌으나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은 2%대로 올라갔다. 당시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중소 자영업자에 부담될 수 있다며 단계적 조치를 요구해 2015년으로 미뤄졌다. /연합뉴스

롯데제이티비 www.LOTTE.JTB.com		신규대리점 OPEN! 하남점 062-611-8875		여행문의 1577-6511		이달의 우수대리점 금남로점 062-228-6644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 062-228-6644			
“무인출발 북경 vs 장가계” “대국의 신비” 북경 4/5일 장가계/천문산/원가계 4/5일 329,000 원부터 859,000 원부터				“프리미엄! 광주출발 북큐슈 vs 터키” “일본” 북큐슈 온천 여행 4일 369,000 원부터				“동서양의 만남” 터키 완전일주 8일 1,849,000 원부터			
유럽 유럽 4개국 9일 2,490,000 원부터		동남아 홍콩 2박2일 499,000 원부터 싱가포르 4박5일 629,000 원부터		일본/괘사야판 오사카/나라/교토/고베 3박4일 499,000 원부터 기타 4박5일 649,000 원부터		중국 황산 상해 항주 5박6일 649,000 원부터 북경 4박5일 299,000 원부터		미주/남태평양 3월~6월 하와이 특가찬스! 1,190,000 원부터		SIT 골프 2013 LPGA 롯데 챔피언십 하와이 골프 캠프 5박6일 1,199,000 원부터	